

“기후위기 현실화…기후변화대응센터 가동 시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이 지역 현안사업 추진 가속화를 위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17일 해남군에 따르면 명현관 군수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차례로 찾아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 등 현안 과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명현관 군수는 농식품부를 방문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폭염을 비롯해 수년간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관련해 해남에 건립되고 있는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의 조속한 건립과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국립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올 하반기 착공해 2029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기후변화대응의 시급성에 따라 여타 공모사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변화 대응 국가전략 수립과 기후변화 영향 예측, 대응기술 개발 등을 총

명현관 해남군수, 지역 현안사업 국비 확보 총력
농식품부·국토부·에너지부 방문…정부에 요청

괄하는 거점기관으로 우리나라 농식품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을 전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명 군수는 “불과 2~3년 사이 기후변화가 농업현장에 최대 위기를 가져올 정도로 심각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센터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식품기후대응본부의 지위를 가지고 정책총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를 찾아 완도(해남 경유)~강진 고속도로 건설 시 해남나들목(IC)의 위치를 해남군에 더 가깝게 조정해 줄 것과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국도18호선 해남 송운교차로~강진 계라교차로의 4차로 확장을 고속도로 건설과 연계해 함께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방문에서는 해남군에 건립 예정인 녹색융합 클러스터와 탄소중립 에듀센터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군은 녹색융합 클러스터를 기후·환경 분야의 연구개발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대한민국 탄소중립 신산업을 육성하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탄소중립 에듀센터는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하는 교육·체험의 대한민국 대표 공간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의 큰 틀에서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명현관 해남군수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차례로 찾아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 등 현안 과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위기 대응과 교통망 확충, 탄소중립 기반 구축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남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며 “지역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박지원 국회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속적

으로 협의하며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완도 소안도 바다에 출렁이는 태극기 ‘눈길’

가로 18·세로 12m 부표 활용
친환경 태극기 조형물 설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 소안도 앞바다에 태극기 조형물이 설치돼 눈길을 끌었다.

17일 완도군에 따르면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항일의 섬 소안도 바다에 부표를 활용해 대형 태극기 조형물을 설치했다.

“항일의 섬, 태극기의 섬”이라 불리는 소안도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 섬 주민 800명이 독립운동을 할 정도로 항일운동이 드세게 일어났으며, 광복 후 건국훈장을 받은 22명을 포함해 89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곳이다.

이에 군은 주민과 관광객이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소안항 주변 담수호(비자리 1423-6)에 친환경 부표 태극기 조형물을 설치했다.

태극기 조형물 규격은 가로 18m, 세로 12m로, 그물(216㎡)에 2420여개의 친환경



항일의 섬 완도 소안도 담수호에 떠 있는 태극기 조형물.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청

경 부표를 부착해 제작했다.

태극기 이미지의 바탕은 1630개 하얀 부표, 태극 문양은 318개의 빨강 부표와 318개의 파랑 부표, 건곤감리 패는 158개의 검정 부표를 하나하나 그물에 매달아 연출했다.

이선웅 소안면 청년회장은 “많은 분들이 태극기 조형물을 볼 때마다 선열들의 뜨거운 애국심을 생각해보게 된다고 말한다”며 “애국의 참모습을 기리고, 애국의 가치가 미래 세대에도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주민이 만드는 관광…진도 미래 그린다

8개 관광두레 성과 공유…지속 가능 관광 생태계 조성

진도관광두레가 주민이 주도하는 관광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관광의 미래를 함께 그리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2026 진도관광두레 지역협의회’를 개최하고, 주민사업체들의 지난 3년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지역협의회에는 김동현 한국관광공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사장, 김춘화 진도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이현명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진도군과 관계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주민사업체들의 활동과 향후 구상(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올해 3년 차를 맞은 진도 관광두레에는 보배야늘자영여조합법인, 유한회사 진도 휴식, 주식회사 세버리힐링농원, 주식회사 흥흥단, 주식회사 베이스캠프154, 주식회사 해온,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트루엔팜, 남도와 남미 등 8개 주민사업체

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주민사업체는 체험, 기념품, 식재료, 숙박, 주민여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도의 자연과 문화, 역사 자원을 관광 자원(콘텐츠)으로 발전시키며, 지역관광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가고 있다.

각 사업체는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관광의 가능성과 경쟁력을 보여줬다.

김은주 진도관광두레 제작자(PD)는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자원과 이야기를 발굴해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가는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주민사업체들이 진도만의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서로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는 관광 생태계를 구축해 진도를 찾는 이유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영암,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무화과 1kg’ 증정·주 1회 배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은 오는 31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를 대상으로 ‘무화과하면 영암, 고향사랑기부도 영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제철을 맞은 영암 무화과를 활용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

고향사랑e음을 통해 영암군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을 주문한 기부자에게 기존 답례품과 함께 영암 무화과 1kg을 추가 증정한다. 무화과는 주 1회 배송될 예정이다.

이벤트는 선착순 1000명 한정으로 진행되며, 준비된 수량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조기 마감 시 고향사랑e음 이벤트 페이지에서 이벤트가 내려가며, 페이지에 게시된 있는 동안 참여할 수 있다.

영암 무화과는 따뜻한 기후와 비옥한 토양에서 재배된 높은 당도와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대표 농특산물이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40도의 날은 집, 누군가에겐 ‘무덤’이 됩니다

더위와 외로움, 어르신들은 숨이 막혀갑니다

족방에는 상해버린 반찬과 텅 빈 물병뿐,
어르신들의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사랑의 도시락을 후원해주세요.

월 2만원

여름 보양 도시락 선물하기 >

ARS
무기명 후원

060-708-1004 (1만원)

후원문의 1811-1004

